

Deloitte Insights

Mar 2025



2025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의 당면 과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진이 주목한 핵심 과제와 대응 현황

Deloitte Insights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2025년에 생명과학*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우려 요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딜로이트 건강 솔루션 센터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계 여러 지역의 생명과학 산업 경영진의 대다수(75%)는 2025년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응답자의 68%가 2025년에 매출 증가를, 57%가 영업이익률 개선을 예상하는 등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이러한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과학과 첨단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획기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딜로이트 건강 솔루션 센터는 2024년 8~9월 미국과 유럽(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 아시아(중국, 일본)의 제약, 생명공학,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제조 기업 최고경영진 150명을 대상으로 동 산업의 우려사항과 우선과제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기업 경영진 3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신중한 낙관론을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본 조사 결과가 세계 여러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하지만 전 세계적인 관점을 다루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보고서는 설문조사 응답자가 '중요하다'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한 트렌드와 행동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산업의 최우선과제와 함께 유의미하며 유용한 인사이트를 강조하고자 했다. 생명과학 산업의 경영진은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압박과 사업 변동성,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직면해, 적응과 가치 창출, 디지털 역량 강화, 성장 등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참여한 임원들은 선제적인 계획 수립과 전략적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앨나일랩 파마슈티컬스(Alnylam Pharmaceuticals)의 최고 기업 개발 및 전략 책임자인 에반 립먼(Evan Lippman)¹⁾은 "저는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활용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몇 년 동안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혁신과 리더십이 미래에 보상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생명과학: 제약, 생명공학,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을 통칭하며, 편의상 리포트 제목 등에 '제약바이오'로 기재하였음

그림 1. 2025년 생명과학 산업 경영진의 전망



참고: n=150(세계 주요 시장의 바이오제약사 종사자 100명, 의료기기 기업 종사자 50명 응답자 포함)
출처: 딜로이트 2025 생명과학 전망 서베이

2025년 디지털 전환이 더 많은 변화를 불러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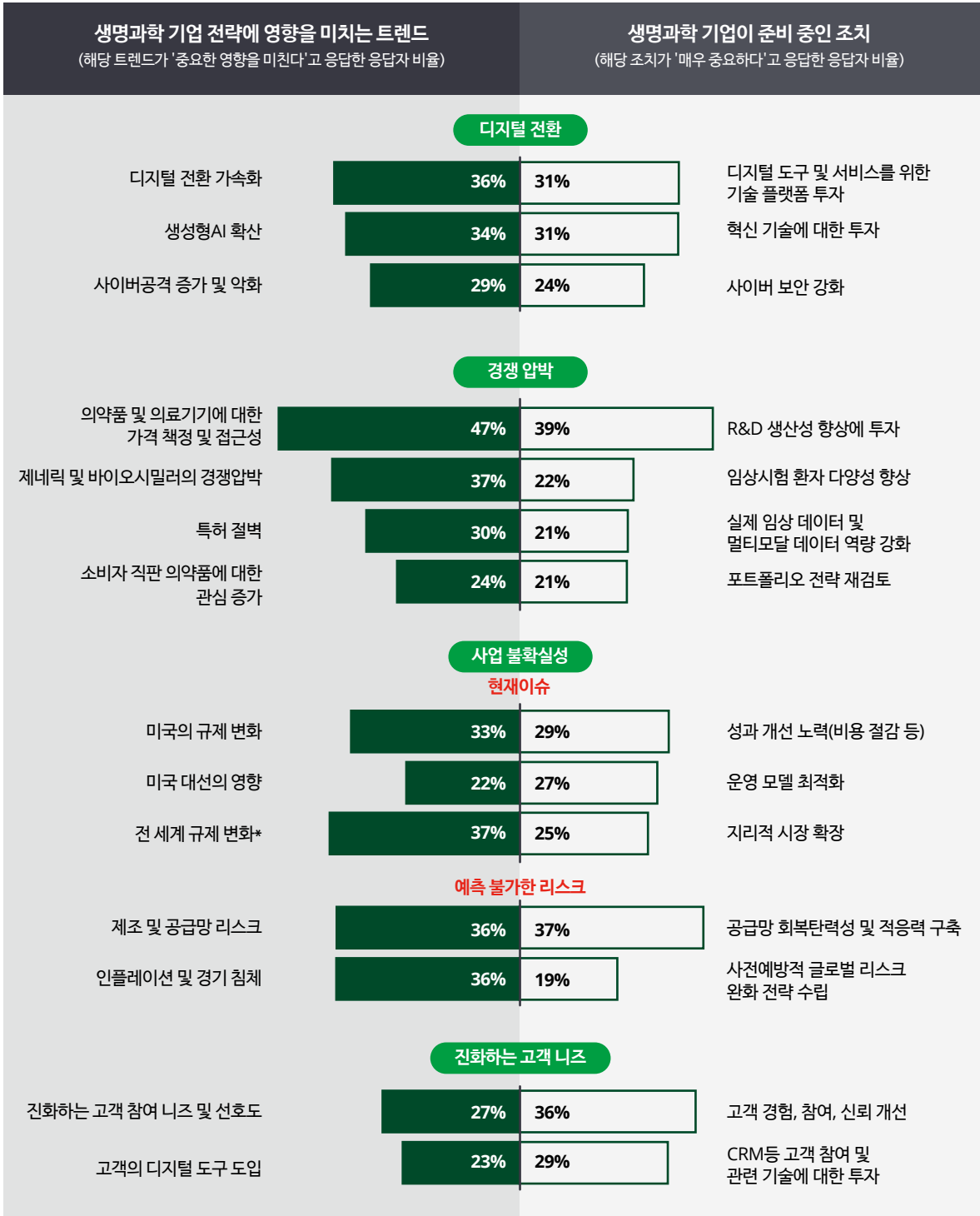
생성형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전환은 올해도 생명과학 산업에서 주요 관심사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기술 혁신은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업 운영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2025년 디지털 전환은 기업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약 60%의 경영진은 '생성형AI'나 '디지털 전환'을 주요 트렌드로 지목하고 있으며, 또다른 60%가 가치사슬 전반에서 생성형AI 투자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초기 파일럿 프로젝트를 넘어 본격적인 기술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딜로이트 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제약바이오 기업의 인공지능 투자는 여러 부서 전반에서 매출 대비 최대 11%에 해당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일부 의료기술 기업의 경우, AI를 도입하면 향후 2~3년 내에 총매출의 최대 12%에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² 특히 생성형AI는 이전의 디지털 혁신보다 더 큰 혁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³ 생성형AI는 연구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백오피스 운영을 간소화하며, 디지털 채널 전반적으로 고객 셀프 서비스 역량을 키우고, 기존 워크플로우에 생성형AI를 도입해 개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해 내려면 생명과학 분야의 리더는 생성형AI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이슈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이슈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해관계자 및 기술 전문가와 소통해야 하고, 생성형AI 모델을 대 규모로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⁴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다케다의 기업 전략 책임자이자 CEO 비서실장인 아마가와 아키코는 인터뷰에서 "현재 디지털 투자는 특정 이니셔티브를 통해 진행되고 있지만, 신약 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것처럼 이러한 투자를 관리하는 우선순위 지정 프레임워크를 세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일관된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프로젝트는 리스크 관리, 운영 효율성, 고객 만족도 등 다양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어서 ROI(투자 대비 수익)와 같은 하나의 척도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우선순위 지정 프레임워크 수립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림 2. 2025년 생명과학 트렌드 및 기업 활동



참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n=150(여러 글로벌 시장의 바이오제약 종사자 100명, 의료기술 종사자 50명 응답자 포함).
설문조사 질문(1열): 다음 산업 트렌드가 2025년 귀사의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설문조사 질문(2열): 위에서 언급한 트렌드에 대비하기 위해 귀사에서 아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선택지는 미국 응답자를 제외한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 중국, 일본(n=90) 응답자에게만 표시됨. 전체 응답자는 미국 및 전 세계 응답자를 모두 포함해 총 150명.
출처: 딜로이트 2025 생명과학 전망 서베이

연구개발(R&D)과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경쟁 압박 완화

최고경영진들은 생명과학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가격 책정과 접근성'을 꼽았다. 설문 응답자 중 약 절반(47%)이 2025년 가격 책정과 접근성이 자사의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49%가 보통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응답자의 37%는 '제네릭(복제약) 및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로 인한 경쟁'을 주요 산업 트렌드로 보고 있으며, 30%는 '특허 절벽'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이벨류에이트파마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약바이오 산업은 고수익 제품의 특허 만료로 인해 2030년까지 3,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손실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만료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임원 중 77%는 2025년에 M&A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명과학 기업들이 이러한 시장 동향에 대응하는 방법은 혁신이다. 그러나 혁신은 시간이 걸리고, 기업들이 유사한 전략을 채택할 경우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일부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파이프라인과 수익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종양학, 면역학 등 수익성이 높은 질병 분야와 적응증을 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자원이 동일한 생물학적 경로나 유사한 작용 기전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⁶ 이러한 중복은 경쟁을 유발하여 복제약이나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진입하기도 전에 가격을 낮추고 시장 점유율과 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으로 인해 일반의약품이나 일반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저분자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경쟁 압박과 희귀질환 및 특수 치료제 개발에 유리한 재정적 인센티브에 대응하느라 일반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축소해 왔다.⁷ 그러나 이러한 약물이 전 세계 인구 8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여러 기업이 2,000억 달러 규모의 GLP-1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⁸ 이 약물은 수면 무호흡증, 중독, 알츠하이머병,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지방간염

등 다양한 일반 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평가받고 있다.⁹ GLP-1은

또한 당뇨병 및 비만과 관련된 의료기기와 외과 수술

수요를 감소시켜 생명과학 산업 및 의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¹⁰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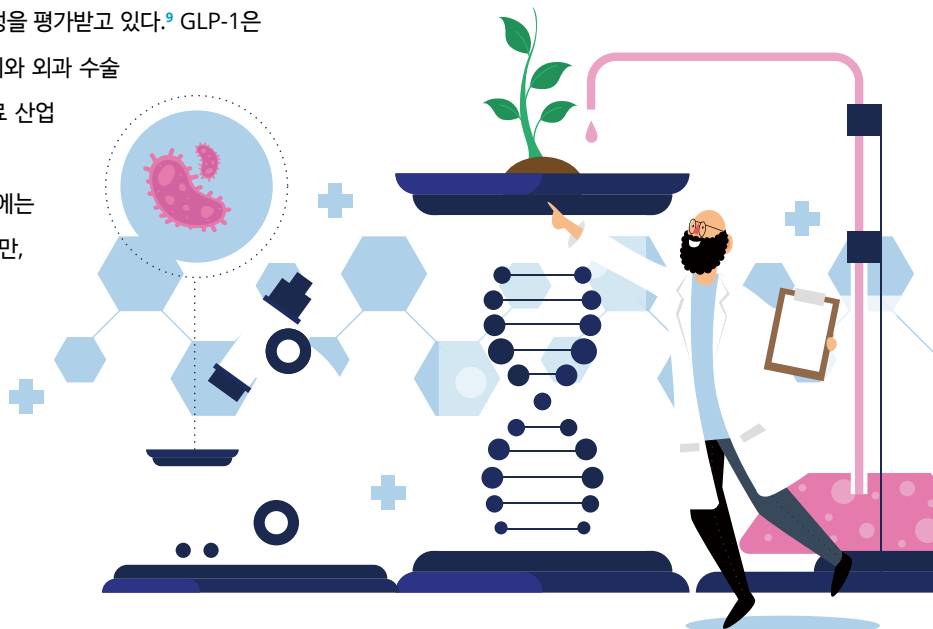
R&D가 주요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천편일률적인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니셔티브

를 모색하고 있다.



R&D 전략 재고

R&D 생산성 저하는 업계의 주요 관심사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로기술 기업 경영진의 절반과 제약바이오 기업 경영진의 56%가 향후 12개월 동안 자사의 R&D 및 제품 개발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약 40%는 업계 전반의 수익 감소를 극복하는 데 R&D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딜로이트 건강 솔루션 센터에서 발표한 혁신의 수익률 측정에 관한 보고서는 일부 제약사들이 생성형AI 및 기타 첨단기술을 R&D 전략에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기존의 R&D 프로세스는 보통 느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이 필요하다. 게다가 신약 후보물질의 실패율은 90%에 달한다.¹¹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에서는 AI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활용하고 있다. 환자의 가상 복제 모델인 디지털 트윈을 통해 신약 후보물질을 조기에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치료법의 잠재적 효과를 파악하고 임상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¹² 예를 들어 사노피는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신약 후보물질을 테스트한다. 또한 개선된 예측 모델링을 갖춘 AI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R&D 기간을 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단축하고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약 20%는 혁신 역량과 시장 니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포트폴리오 전략을 평가하고 있다. 2024년에 많은 기업이 큰 잠재력을 지닌 후보물질에 집중하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축소했다.¹³ 막대한 임상 개발 비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정은 비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⁴ 문제는 어떤 물질을 파이프라인에서 제외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풍부한 임상 데이터는 아직 충족되지 않은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유망한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은 또한 후보물질이 자사의 전반적인 목표와 역량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¹⁵ 본 설문조사에서 제약바이오 응답자 중 32%는 CAR-T 세포와 크리스퍼(CRISPR) 기술을 이용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와 같은 혁신 기술을 소위 '미투(me-too)' 의약품보다 우선순위에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미투 의약품이란 기존에 출시된 의약품을 개선하거나 약간 변경한 약품이다). 또한 의로기술 응답자의 30%는 새로운 치료 방식과 플랫폼을 고려하고 있으며, 24%는 클래스 II 또는 클래스 I 기기보다 클래스 III 기기 개발을 우선순위로 선택했다(환자에 대한 의로기기의 위험도에 따라 클래스 I, II, III로 구분하고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다).

기업 전략에 맞는 인수합병

지난 수년 동안 기업 인수합병(M&A)은 대형 생명과학 기업에게 신뢰할 만한 혁신의 원천이었다. 지난 딜로이트 보고서에서 제약바이오 산업 내 특허 결벽으로 인해 기업들의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치료 분야 전문성과 상업적 역량을 결합할 줄 아는 능력에 달린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화이자(Pfizer)는 성장하고 있는 시장 내에서 신경학 분야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바이오헤이븐 파마슈티컬스(Biohaven Pharmaceuticals)를 인수했다.¹⁶ 마찬가지로 메드트로닉(medtronic)은 마조 로보틱스(Mazor Robotics)를 인수하여 첨단 로봇 시스템을 외과 수술 제품군에 도입함으로써 최소 침습 수술의 정밀도와 환자 치료 결과를 개선할 수 있었다.¹⁷ 하지만 모든 기업 인수가 기대만큼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임상 시험의 불확실성, 기업 통합 과정의 어려움, 전략의 부조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 임상 데이터 및 멀티모달 데이터 역량 강화

설문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56%)이 실제 임상 데이터(real-world evidence)와 멀티모달 데이터 역량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기에는 임상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환자 보고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중 21%만이 이를 '매우 중요한' 우선 순위로 보고 있다. 실제 임상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다수의 생명과학 기업들이 여전히 멀티모달 데이터 전략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역량에는 다양한 출처에서 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화하여 비즈니스 유저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탄탄한 데이터 분석 인프라와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성이 포함된다.

2025년 사업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생명과학 기업들

대부분의 경영진들이 2025년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일부는 예상치 못한 도전과제와 사업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설문 조사 응답자 중 약 1/3은 2025년 미국 규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37%는 전 세계 규제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몇 년보다 소폭 높아진 반면,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제약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관련 규제와 셰브론 원칙(Chevron Doctrine) 폐지 가능성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셰브론 원칙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FDA(미국 식품의약국)이나 CMS(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등 연방 기관이 모호한 법률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법원이 법률에 대한 규제 기관의 법적, 과학적, 기술적 해석과 비공식적 규칙 제정을 계속 따를지 불확실한 상황이다.¹⁸ 유럽에서는 여러 규제 변화가 진행 중이다.¹⁹ 이번 조사 당시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의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힌 것 임상시험 규제 변화였다. 신규 및 현재 진행중인 임상 시험에 대한 규제 시행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이 법에는 아직 업계가 숙지하지 못한 몇 가지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에는 과학적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요약, 연구 데이터 식명화 및 편집 등이 포함된다.²⁰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영진의 36%는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공급망 및 생산 차질 등 예측할 수 없는 이슈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회복탄력성, 민첩성, 전략적 예측에 집중하면서, 시나리오 계획 수립을 통해 이미 드러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이 어려운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공급망 강화: 반도체 부족 사태, 지정학적 분쟁, 기후 위기는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¹ 이를 반영하듯 생명과학 분야 경영진의 37%가 회복탄력적이며 적응이 빠른 공급망 구축을 2025년 최우선순위로 꼽았다. 미국 딜로이트 건강 솔루션 센터의 2024년 연구는 공급망 디지털화가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공급망 이슈는 의료기술 산업과 제약바이오 산업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의료기술 기업의 공급망은 특히나 여러 국가에 산재되어 있으며, 다양한 공급업체로부터 각양각색의 특수 부품을 조달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공급망 차질에 특히 취약할 수 있으며 회복탄력성이 중요하다.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규제,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제와 같은 규제 변화, 인플레이션, 원자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공급망 이슈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그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료기술 경영진의 48%는 공급망 및 생산 관련 위험이 2025년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이에 공감하는 제약바이오 경영진은 30%에 그쳤다.

운영 모델 최적화 및 비용 절감: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생명과학 산업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²²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영진의 약 60%가 운영 모델 최적화를 2025년 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27%는 이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또한 약 30%의 경영진은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비용 절감 등의 성과 개선 이니셔티브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4년에는 구조조정, 오프쇼어링, 외주, 심지어 인력 감축 등의 비용 절감 조치가 이루어졌다.²³ 2025년 일부 기업들은 운영을 최적화하고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생성형AI와 기타 첨단 기술에 눈을 돌리고 있다.

사이버 보안 강화: 사이버 공격은 생명과학 산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며, 공급망 차질, 제조 공정 마비, 수년간의 연구 무산, 막대한 재정적 피해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는 기업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²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영진의 24%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투자를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으며, 43%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사이버보안은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사업 운영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²⁵

기후 위기 및 지속가능성 공시 요건에 대비: 미국 외 지역 설문조사 응답자 중 83%는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이 2025년 전략에 중대한 또는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다른 관련 EU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응답자 중 77%는 2025년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딜로이트의 2024 지속가능성 행동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생명과학 기업이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평균 이상의 진전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금융 시장이 지속가능성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기 전까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조치는 비즈니스 전략이 아닌 규제 준수 이슈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영향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공화당 정책 강령을 지지하면서 몇 가지 처방약 관련 주제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년층을 위한 약가 인하 정책은 지지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약가 조항은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대신 첫 임기 당시 제안했던 최혜국 대우 모델을 수정하여, 메디케어(Medicare) 약가를 다른 국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력을 강화했고, 캐나다에서 일부 처방약 수입을 허용했으며, 노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약가 투명성을 높이고 처방약 선택권과 경쟁을 확대할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자체적인 약가 협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변화를 추진하기 시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약급여관리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혁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상에 참여해왔다.²⁶ 첫 번째 임기 말, 트럼프 대통령은 메디케어 파트 D 리베이트에 대한 기존의 면책 조항(safe harbor)을 대체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면책 조항은 판매 시점에 적용되는 할인에만 적용되었다.²⁷

또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340B 프로그램(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할인 정책) 삭감했지만 나중에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삭감을 재검토할 수 있다.²⁸

트럼프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는 반도체법(CHIPS Act)을 비판해 왔다. 의료기술 기업들은 많은 제품에 반도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자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²⁹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면서, 의회는 예산 조정 절차³⁰를 활용해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고 기존 법률을 수정할 수 있다. 예산 조정은 연방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예산 조정을 통해 통과된 법안으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건강보험개혁법,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감세 및 일자리법,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있다.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술 기업은 다음과 같이 2기 행정부에 대비할 수 있다.

- ✔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내 대통령 임명직 인사를 모니터링하여, 보건 정책 방향을 예측
- ✔ 하원과 상원의 권력 구조가 보건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
- ✔ 연방, 주, 지방 차원의 규제 및 법규 준수 전략을 강화
- ✔ 약가 정책, 처방약급여관리업체 개혁 등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2025년 고객의 기대치 변화가 전략에 미치는 영향

고객의 선호도와 기대치는 2025년 이후에도 기업 전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생명과학 기업들은 소비자, 병원, 보건, 의료 전문가 등 다양한 고객 집단과 점점 더 복잡해지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고객 집단의 니즈와 인센티브, 기대치는 상이하다. 본 설문조사에서 최고경영진의 36%는 고객 경험과 참여도, 신뢰도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29%는 고객 참여 전략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약바이오 기업은 의료기술 기업에 비해 고객 참여 니즈 해결이 훨씬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제약바이오 기업 경영진의 32%가 '진화하는 고객 참여 니즈'를 중요한 트렌드로 꼽은 반면, 의료기술 기업 경영진 사이에서는 18%에 불과했다. 또한 제약바이오 응답자의 32%는 고객 참여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투자를 2025년 우선 순위 이슈로 꼽은 반면, 같은 이슈를 꼽은 의료기술 응답자는 불과 24%였다.

생명과학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 개개인에 맞게 소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존슨앤존슨 제약 부문은 AI를 활용해 피드백과 선호도를 기반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개인맞춤화한다. 일본 존슨앤존슨 제약 부문의 사장 겸 대표이사인 세키구치 슈헤이는 한 인터뷰에서 당사의 접근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희 커머셜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하여, 고객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선호도를 파악하며 다음에 일 어날 고객과의 상호 작용이 어떤 형태여야 할지, 어떤 채널을 사용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의료 시스템, 의료 전문가 등의 의료 제공자들은 제약사를 비롯한 생명과학 기업들의 핵심 고객 집단이다. 그러나 2024년 딜로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의 약 3분의 1만이 제약사의 고객 지원 리소스가 자신의 니즈를 충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약사 경영진의 80% 이상이 현재 자사의 고객 참여 전략에 만족한다고 답했다.³¹

의료 전문가들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의료 소비자들은 점차 자신의 건강에 대해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³² 이들은 점점 더 의료 전문가를 신중하게 고르고 있으며, 보다 개인화된 치료법과 원활한 지원 서비스,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생명과학 기업은 이에 대응해 소비자 직판 프로그램을 런칭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일라이 릴리는 2024년 초 환자가 제초업체로부터 특정 의 약품을 기존 채널보다 저렴한 가격에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포털을 런칭했다.³³ 몇 개월 후 화이자사는 화이자포털(PfizerForAll) 소비자 포털을 런칭했다.³⁴ 의료기기 기업 중에서는 혈당 측정기 제초업체인 텍스콤(Dexcom)이 최근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출시한 바 있다.³⁵

제약바이오 기업과 의료기술 기업은 소비자 경험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제약바이오 응답자의 54%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동일한 응답을 한 의료기술 응답자는 불과 26%였다. 그러나 두 산업 모두 환자 치료 여정을 개선하고 개인맞춤형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비슷한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약바이오 응답자의 52%와 의료기기 응답자의 44%가 소비자 니즈에 맞춰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나 치료 여정을 개인맞춤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제약바이오 응답자의 50%와 의료기기 응답자의 44%가 소비자에게 보다 개인화된 건강 인사이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 성장과 혁신에 대비하기

생명과학 산업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과학적 혁신을 바탕으로 2025년에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경쟁과 비즈니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글로벌 생명과학 업계 경영진은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한 소규모 제약사의 수석 부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희는 개인맞춤형 의약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유전체학(Genomics)과 바이오마커(Biomarkers)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환자들에게 더 정밀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크게 줄여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발전은 혁신적인 치료법의 가능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가격 책정 및 보험 급여 정책, 규제 절차,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외부 압력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생성형AI와 같은 첨단기술 도입과 데이터 활용의 증가는 기업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획기적인 혁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는 능력이 시장에서의 차별화와 확장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치료 솔루션을 발전시키고 환자 치료 결과를 개선하려는 산업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생명과학 분야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주석

1. Alnylam® Pharmaceuticals focuses on the discover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ribonucleic acid interference therapeutics for genetically defined diseases.
2. Sheryl Jacobson, Mukund Lal, Dr. Jay Bhatt, Leena Gupta, Apoorva Singh, and Wendell Miranda, "Is generative AI changing the game for medtech?" Deloitte Insights, Oct. 15, 2024.
3. Jim Rowan, Beena Ammanath, Costi Perricos, Brenna Sniderman, and David Jarvis, "Deloitte's State of Generative AI in the Enterprise quarter three report," Deloitte, August 2024.
4. James Ryseff, Brandon F. De Bruhl, and Sydne J. Newberry, "The root causes of failur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projects and how they can succeed," RAND, Aug. 13, 2024.
5. Evaluate, "Official website," accessed November 2024.
6. Alex Blair and Namrita Negi, "More competition in oncology, state regs may impact biopharma," Nov. 2, 2023; BioSpace, "Oncology market size to exceed USD 521.60 billion by 2033 | CAGR 8.9%," April 16, 2024.
7. A growing share of FDA-approved drugs are orphan drugs. In 2023, half of all new drugs were orphan drugs; in 2013, that share was one-third. Se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Novel drug approvals for 2022," accessed Nov. 5, 2024; FDA, "2022 biological license application approvals," accessed Nov. 5, 2024; FDA, "Advancing health through innovation: New drug therapy approvals 2023," accessed Nov. 5, 2024; Brian Corvino, John Jaeger, Natasha Elsner, and Madhushree Wagh, "Rethinking market access: Delivering on the promise of therapeutic innovation," Deloitte Insights, March 9, 2022.
8. World Health Organization, "Obesity and overweight," March 1, 2024.
9. Jonathan Goldney and Melanie J. Davies, "GLP1 agonists: Current and future landscape of clinical trials for patients with metabolic dysfunction," *Nature Reviews Gastroenterol Hepatol* 21 (2024): pp. 664–666; Grant Playter, "Beyond weight loss: Novo and Lilly look to expand their GLP-1 pipelines," BioSpace, July 22, 2024.
10. Megan Molteni, "In the era of GLP-1 drugs, demand for bariatric surgery plunges," STAT News, Oct. 25, 2024.
11. Duxin Sun, Wei Gao, Hongxiang Hu, and Simon Zhou, "Why 90% of clinical drug development fails and how to improve it?" *Acta Pharmaceutica Sinica B* 12, no. 7 (2022): pp. 3049–3062.
12. Sanofi, "Digital 'twinning': Clinical trials powered by AI," May 22, 2024.
13. Several organizations, including J&J, BMS, Roche, and Moderna, have announced pipeline reductions to strategically allocate resources to their most promising prospects. See: Ben Fidler, "Moderna to cut costs, trim pipeline in R&D revamp," *Biopharma Dive*, Sept. 12, 2024; Ayisha Sharma, "Roche doubles down on high-impact projects after slashing 20% of its pipeline," *Endpoints News*, April 24, 2024; Tristan Manalac, "J&J scraps pipeline assets including Alzheimer's and Parkinson's candidates," BioSpace, Oct. 16, 2024; Ned Pagliarulo, "Bristol Myers to cut 6% of workforce, trim drug pipeline," *Biopharma Dive*, April 25, 2024.
14. May, Taylor, Gupta, and Miranda, "Unleash AI's potential."
15. Meagan Parrish, "Pharma's R&D gamble: Picking pipeline winners in a risky field," *Pharma Voice*, June 7, 2024.
16. Kevin Dunleavy, "The top 20 pharma companies by 2023 revenue," *Fierce Pharma*, April 15, 2024.

17. Tyler Clifford, "Mazor Robotics \$1.6 billion acquisition is 'beginning to pay off,' Medtronic CEO says," CNBC, Jan. 14, 2020.
18. Aaron Savit and Ian Swan, "FDA after Chevron," Axinn, March 5, 2024; Ferdous Al-Faruque, "Experts: Chevron deference ruling could impact recent FDA regulations," Regulatory Focus, July 2, 2024.
19. Key new developments include the new guidance on the validity of clinical studies for Joint Clinical HT Assessments; initiatives to improve cancer treatments; the regulation amending Medical Devices Regulation and the In Vitro Diagnostic Regulation regarding supply disruptions;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transparency in pharmaceutical pricing; the 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the European Commission's decision on the interpretation of data concerning health. See: Hogan Lovells "Q3/2024 Life Science Law Update – Key developments for pharma & device companies in EU," Oct. 31, 2024.
20. Emily McShane, Anaya Rehman, and Honz Slipka, "Understanding Europe's new clinical trial regulations," Certara, accessed Nov. 11, 2024; European Medical Writers Association, "Clinical trial transparency and disclosure," Medical Writing 33, no. 3 (2024).
21. JP Morgan, "What's behind the global supply chain crisis?" May 25, 2022; Supply Chain Dive, "Extreme weather is 2024's top supply chain risk: Everstream," Jan. 11, 2024.
22. Kelly Bilodeau, "Behind Big Pharma's layoffs — is there an end in sight?" Pharma Voice, June 10, 2024; BioSpace, "Layoff Tracker: J&J, Merck trimming workforces in China," Nov. 21, 2024.
23. Gabrielle Masson, Darren Incorvaia, and Max Bayer "Fierce Biotech Layoff Tracker 2024: Takeda rolls out more cuts; Sage shakes up C-suite," Fierce Biotech, Oct. 21, 2024.
24. IBM, "What is a cyberattack?" accessed Oct. 11, 2024; IBM, "Cost of a data breach report 2024," accessed Oct. 10, 2024.
25. Deloitte, "2023 Global future of cyber survey: Building long-term value by putting cyber at the heart of the business," accessed Nov. 11, 2024.
26. Susanna Vogel and Rebecca Pifer, "PBMs battle bipartisan scrutiny as lawmakers eye industry reform," July 24, 2024; Committee on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Hearing wrap up: Oversight committee exposes how PBMs undermine patient health and increase drug costs," July 23, 2024.
27. This was later delayed by the Inflation Reduction Act until 2032.
28. Helen R. Pfister, "340B Roundup: Trump-era rule rescinded, motion to dismiss denied & HRSA advisory opinion withdrawn," Manatt, July 7, 2021.
29. Dylan Butts, "Trump likely to uphold CHIPS Act despite his campaign rhetoric, policy experts say," CNBC, Nov. 7, 2024.
30. Budget reconciliation is a legislative process that can only be used to reduce the deficit generally through spending reductions or revenue increases. The process allows the Senate to bypass the filibuster for budget-focused legislation, requiring only 51 votes instead of the usual 60-vote threshold. See: Richard Kogen and David Reich, "Introduction to budget reconciliation,"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May 6, 2022.
31. Deloitte, "The case for change: Preparing for the future state of CRM technology in an evolving customer engagement environment," Sept. 4, 2024.
32. Marcia Costa and Emily May, "How consumer health companies are meeting the increased expectations of a more knowledgeable and empowered consumers," Deloitte Centre for Health Solutions, Sept. 20, 2024.
33. Ned Pagliarulo, "Lilly launches online service for home delivery of weight loss drug," Biopharma Dive, Jan. 4, 2024.
34. Pfizer, "Pfizer launches PfizerForAll™, a digital platform that helps simplify access to healthcare," Aug. 27, 2024.
35. Dexcom, "Stelo by Dexcom first glucose biosensor cleared by FDA as over-the-counter," March 5, 2024.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딜로이트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내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성장의 동반자로서 제약사, 의료 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업의 전략적 과제와 혁신을 함께 해왔습니다. 약사 등 전문 자격 소지한 전문가를 국내 최다로 보유한 산업 전문팀은 다년간의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 기업이 혁신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편제성 이사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리더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1979

✉ jpyeon@deloitte.com



안동휘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1617

✉ doahn@deloitte.com



박태호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2163

✉ taehpark@deloitte.com



김영필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 세무자문 부문

☎ 02 6676 2432

✉ youngpkim@deloitte.com



최원정 상무보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 컨설팅 부문

☎ 02 6676 3703

✉ wonjechoi@deloitte.com



문상식 이사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 컨설팅 부문

☎ 02 6676 3671

✉ sangsmoon@deloitte.com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정동섭 Partner

dongjeong@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연구원

권은진 Senior Consultant

eukwan@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